

108명의 남행자들이 석가모니 불을 부르며 염없이 절을 한다. '예불대참회문'을 염송하며 시작된 백팔참회는 30여 분간 계속됐다. 한낮 더위가 가신 늦은 오후였지만 행자들의 이마엔 구슬땀이 맺혔다. 간절한 염성과 파릇파릇이 바닥에 댄 이마. 앞으로 평생 이 길을 가야 한다. 스스로가 선택한 부처의 길.

8월27일 오후 통도사 설법전.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의 3 일째는 이렇게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행자교육원에 입교한 남행자 108명과 여행자 88명은 9월 16일까지 23일간 엄격한 교육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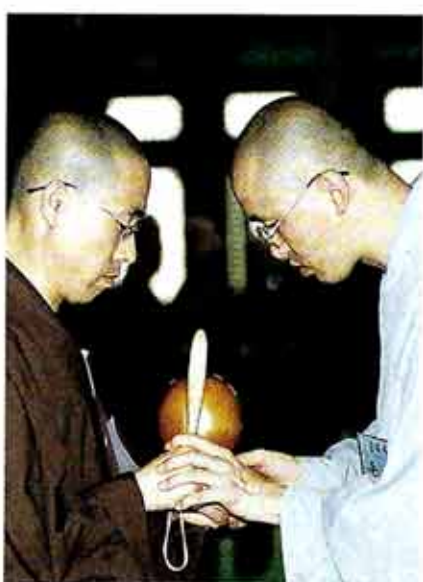
◁해인사 유원장 혜능스님의 '사미들의 강'의 줄을 듣고 있는 행자들. 지계(持戒)를 통해 출가수행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하는 혜능스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조계종 28기 행자교육 통도사 설법전 현장취재

행자교육원은 조계종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1차 관문. 출가한 사람에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행자들이 전국에서 모인 자리다. 그렇다고 아무나 행자교육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23기 행자교육원 신청자 235명 중 필기고사, 신체검사, 면접에서 36명이 탈락했다.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



◁가자런히 놓여져 있는 행자들의 고무신. 행자교육원의 엄격한 규율을 그대로 보여준다.



◁습의시간에 한 행자가 습의사 스님으로부터 묵탁치는 법에 대해 지도를 받고 있다.



◁저녁예불. 오분향례(五分香禮)·다섯 개의 향을 나눠 피우면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을 염송하며 부처님 뒤를 따르는 심을 살렸다고 서원하는 행자들.

“오직 부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바쁘게 일한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은 재물을 쫓아다니는 것. 행자들의 노트가 깨알 같게 글씨로 채워진다. 철저히 익히고 지키게 되고.

'예식의례' 시간은 행자들에게는 아직 낯설다. 목욕을 치는 법도, 요령을 흐르는 법도, 염불을 하는 법도 아직은 서툴다. 하지만 불가의 모든 것은 법도가 있는 법. 한 행자가 습의사 스님으로부터 묵탁 치는 법에 대해 개인지도 받는다. 행자교육을 마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터. 교수사(敎授師) 행자교육을 담당하는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행자들이 치는 묵탁소리가 영축산에 울려 퍼진다.

두 과목 강의 후 1시간여의 정근을 마치고 나면 사시법공양. 스님으로서 알아야 할 것까지 예복 가운데 배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발우공양. 비벼먹거나 국이나 물에 말아먹어서도 안된다. 밥을 받아든 발우를 내려놓고는 다시 합장 반 배. 가자런히 발우를 펼쳐 놓는 것도, 공양을 마친 후 물을 담아 발우를 깨끗이 씻고 그 물까지 다 마시는 것도 수행이다. '자세를 바로 하세요' 습

습의 등 스님 되기위한 기초 소양 교육
 묵언·청규 철저히...여기면 3천배 참회·퇴방
 교육후 시험 통과하면 사미(尼)계수계

의사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자들은 다시 허리를 곧추 세운다. 사시공양 뒤 20분간의 휴식 시간도 잠시, 초발심자경문, 습의, 위의를 강의가 3시간 동안 이어지고, 계속해 윤역과 청소, 정근으로 오후시간이 지나간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어지는 습의와 강의. 23일간의 교육기간동안 행자들은 기초 의식을 포함해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 고승전, 42장경, 사미들의 등 10개의 교과목을 이날과 똑같은 일정에서 맞춰 배워야 한다. 말 그대로 강행군이다. 게다가 모든 행동에 있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다. 걸을 때는 반드시 차수(叉手) 손을 포개어 단전에 올

러놓는 것을 해야 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줄을 지어 가야만 한다. 하지만 뛰니 뛰니 해도 가장 힘든 것은 오후 불식. 행자들은 오전 11시 사시법공양 이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한다. 물론 일체의 간식도 허락되지 않는다. 오후 불식을 하려면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처음 해보는 오후불식이 쉬울 리 없다. 건강인 사람도 견디기 쉽지 않은 일. 일주일일이 고반과 한다.

오후 불식 4일째지만 아직까지 지켜 보이는 행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출가자의 길이라는 것이 어차피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버려지기 힘든 것. 행자들은 그렇게

에는 3천배 철야정진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고시를 치르게 되고, 여기에서 합격하면 교육 마지막 날인 9월16일 밤색(夜色) 행자복 대신 잿빛 사미(尼)복을 입고 사미(尼)계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렇기에 행자들은 한순간도 놓침 없이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통도사=한명우 기자 ymh@buddhanews.com
 사진=고영배 기자 yb00@buddhanews.com

스님이 되기까지 시미계후 강원등 종단지정 교육기관 기착어 비구계

조계종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출가한 사찰에서 최소 5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자들은 새벽 2시 반 아침예불을 시작으로 공양준비, 청소 등 절 안팎의 각종 허드렛일을 하며 '하심'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단계가 바로 행자교육원이다. 그리고 행자교육원을 이수하고 난 뒤에는 강원이나 기초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 통단이 지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을 마쳐야만 비로소 비구(尼)계를 받고 정식

으로 스님이 된다. 최근 몇 년 새 출가행자들의 학력과 연령은 높아져가는 추세다. 이번 23기 행자교육원 지원자 235명 중 93명(40%)이 대학졸업, 대학원졸 7명이나 된다. 5년 전과 비교해 고학력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만큼 행자들의 기본자질이 높아져가고 있는 셈이다.

고학력자가 늘면서 지원자 평균연령도 높아졌다. 이번 23기를 보면 30대가 103명(44%)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47명(20%)이 나왔다. 20대는 74명(31%)이었다. 과거 20대가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기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원전 무력하다. 옛날 의사들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안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열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모이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백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